

애절한 사랑의 벚꽃

제주 여인들은 제주에 온 유배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그 중 홍윤애와 조정철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다. 벚꽃처럼 짧은 삶을 살다간 홍윤애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자.



홍랑길 | 제주시 삼도1동 553-10 ~ 제주시 삼도1동 305-130(약 0.5km)

서상로 | 제주시 삼도2동 855 ~ 제주시 오라2동 1060(약 1.9km)

남성로 | 제주시 용담1동 2651-6 ~ 제주시 삼도2동 206-5(약 1.7km)

전녕로 | 제주시 용담1동 2814 ~ 제주시 이도1동 1690-4(약 1.2km)

평전길 | 제주시 삼도1동 534-10 ~ 제주시 삼도1동 529-11(약 0.5km)

충효길 | 제주시 삼도1동 782-35 ~ 제주시 삼도1동 804-11(약 0.5km)

홍랑길 | 홍윤애와 조정철

전농로와 만나는 **홍랑길**은 유배인 조정철과의 러브스토리를 남긴 홍윤애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조정철은 영조를 시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제주에 유배를 온 인물이다. 조정철이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철천지 원수집안의 사람인 김시구가 제주목사로 부임한다. 김시구는 조정철에게 덮어씌울 죄를 찾아내려고 주고받는 편지와 물건들을 모두 뒤지고 유배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 그러던 중에 홍윤애가 조정철을 뒷바라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시구는 홍윤애를 잡아다 조정철의 역모죄를 자백하라고 문초를 한다. 홍윤애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끝내는 자결하고 만다. 그 이후에 김시구는 조정철이 역모를 꾸민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가 거짓이 들통나면서 과직당한다. 훗날 유배에서 풀려난 조정철은 홍윤애가 죽은 뒤 거의 30년 만에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에 돌아온다. 그는 홍윤애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써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녀의 절개를 위로하였다고 한다. 홍윤애의 무덤은 전농로 인근에 있다가 애월읍 유수암리로 옮겨졌다. 전농로의 벚꽃이 바람에 날려 떨어질 때면 홍윤애의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이 전해지는 듯하다.



홍윤애 무덤터

서사로/남성로/전농로 | 전농로의 벚꽃길

서사로는 중앙로와 나란히 이어지면서 제주시 도심과 바닷가를 잇는 길이다. 서사로를 지나가는 부근을 사람들은 서사라라고 부른다. 서사라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자갈이 많은 땅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땅이 비옥해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라고도 한다. 서사로의 북쪽은 옛날 제주성의 남문이 있던 곳으로 이어지는 남성로와 만난다. 인근에 있던 남성마을의 명칭에서 **남성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서사로와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은 **전농로**다. **전농로**라는 이름은 제주의 최초 중등교육기

관인 제주공립농업학교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공립농업학교는 원래 중앙로 오현단 인근에 있었는데 1940년대에 삼성초등학교 자리로 옮겨졌다. 이후 제주농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었다. 지금은 신제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에는 제주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벚꽃

전농로는 벚꽃길로 유명하다. 칼호텔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길 주변에는 제주공립농업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에 심어진 벚나무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다. 매년 봄이 되면 하얀 벚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왕벚나무가 일본에서 온 나무라고 해서 배척했었다고 한다. 진해의 경우 해방 후에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거리에 심어진 왕벚나무를 베어버리기도 했었는데 제주의 식물학자 부종휴 선생의 연구로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제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왕벚나무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지금은 진해 군항제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전농로는 제주에서 아름다운 벚꽃길 중의 한 곳으로 손꼽힌다. 마을에서는 매년 서사라문화거리 벚꽃축제를 열어 지역의 명소로 홍보하고 있다.

평전길 / 충효길 | 서사라의 옛 모습

전농로는 **평전길**, **충효길**과 만난다. 탁 트인 평지를 이루었던 곳이라는 의미인 **평전길**은 지금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에서 넓은 밭이 펼쳐져 있던 서사라 지역의 과거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지명이다. **충효길**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우애로운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해 가려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이처럼 마을길의 이름에는 과거의 기록과 역사적 사건, 인물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